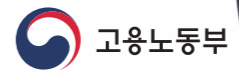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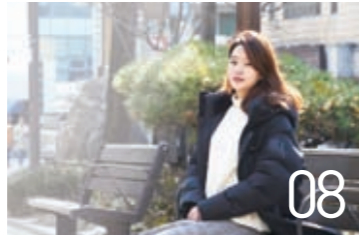
내일

2018. 1
Vol. 513



CONTENTS

2018. 1
Vol. 513



SECTION 1 청춘, 꽃피 십다

- | | |
|---|---|
| <p>04 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구직활동수당</p> <p>08 청년이 미래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취업아카데미로 꿈에 날개를 달다 김현정</p> <p>12 청년 해외취업 지원
일본·ASEAN 해외취업 정보박람회</p> <p>16 능력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p> | <p>20 일학습병행제 우수 기업
기업과 학습근로자,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실현하다 ㈜삼천</p> <p>24 청년친화강소기업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복지 좋은 기업 한국도키맥주식회사</p> <p>28 미래 유망 직종
모바일 광고기획자</p> <p>32 내일 프로젝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꿈꾸다 세어하우스 우주</p> <p>36 기능만능
손끝에서 완성되는 제품의 디테일 (주)세일금형 오세일 대표</p> |
|---|---|

SECTION 2 여성, 장년 꽃피우다

- 40 **단절을 단절하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빵의 마법 홍수민
- 44 **인생 제2막**
새로운 마음으로 꿈꾼 재도약 최경태
- 48 **일가양득**
육아홀릭 슈퍼맨들을 위한 길라잡이 이빠넷
- 52 **조화로운 삶**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본아이에프

SECTION 3 고용노동정책, 일 우거지다

- 56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노사문화대상**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한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노사문화대상
- 60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장년 근로자 스스로 건강 지키기!
- 62 **알기 쉬운 산업 안전**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자료 여기서 활용하세요!
- 64 **사례로 보는 노동법**
-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할 수 있나요?
- 해외사업장에 근로하는 직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66 **모엘 뉴스**
1월의 고용노동부 뉴스

SECTION 4 여가, 향기로 남다

- 70 **직장인 인문학**
우리 시대의 청백리
- 72 **일출 명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일출 명소
- 74 **이달의 문화 소식**
1월의 신작 영화 & 추천 책 소개
- 76 **건강 돋보기**
음주와 과식이 많은 연말연시 위식도 역류병 주의보
- 78 **참살이 건강 밥상**
오래 전부터 먹은 바다의 우유 굴
- 82 **모엘 마당**
독자 상품 당첨자 발표와 퀴즈 이벤트

고용노동부 소식지 1월호 <내일>

통권 제513호 등록번호 강남 라00389 발행일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김영주 발행처 고용노동부

편집위원장 황보국(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기획·편집·디자인 하나로애드컴 인쇄·발송 애드그린



청년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청년일자리 3종 세트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구직촉진수당

얼어 붙어 있는 경제 상황과 취업시장으로 인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고 싶은 중소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정부에서 청년의 취업을 위해 내놓은 정책 중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 노혜진

더 강력하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은행의 적금 및 예금 금리가 한없이 낮아진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의 원금으로 1,600만 원을 돌려 받는 꿈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붓는 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만 15~34세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이 제도에 가입하고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는 적은 돈으로 큰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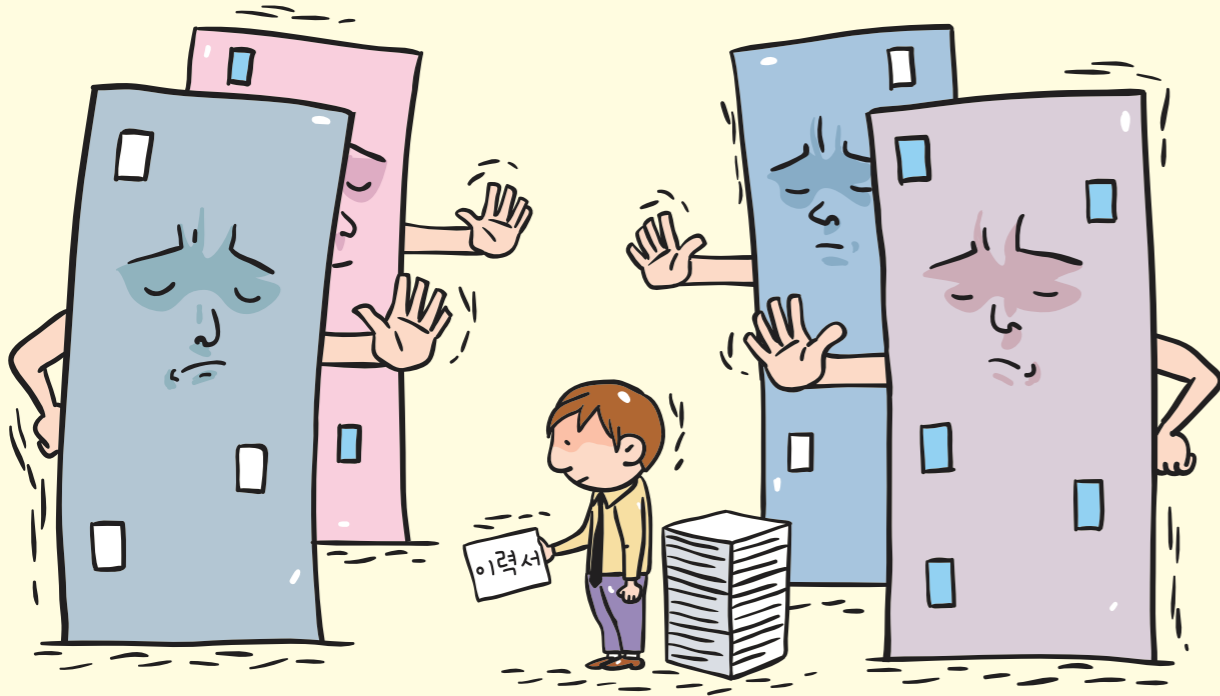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5~34세의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정부가 운영하는 3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만약 이러한 서비스에 사전 참여하지 않더라도 워크넷을 통해 알선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기본 신청자격이 됩니다. 취업한 기업이 강소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은 청년들은 취업 전에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청약신청을 해야 해요.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2년 동안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은 각각 9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1·6·12·18·24개월에 한 번씩 2년간 총 5회에 걸쳐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이 적립금은 2년 후에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력난 문제에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시도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그것인데요, 3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제도

고용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제도인 것이죠. 기업은 인력확보를 쉽게 할 수 있고 우수 기업 인증과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취업성과가 더불어 장기근속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이 되는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을 3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유지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만 15~34세의 청년 3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난 후 장려금은 연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급합니다.

청년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생활비, 교통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의상비, 시험응시료 같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바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18~34세의 청년층의 적성을 찾아 일자리와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로 진입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자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참여하여 1단계 또는 2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라면 3단계 진입 시에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획서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직활동 계획이 들어가야 하죠(예: 입사지원서 제출+△△ 기업면접응시, OO기업 면접응시+면접특강 수료 등). 이렇게 작성한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난 후 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상담사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던 도중에 취업 성공이 된다면 해당월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청년과 기업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 어떠셨나요?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취업준비부터 취업 후 목돈 마련까지 알뜰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차게 도전하는 푸른 청년들의 미래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취업아카데미로 꿈에 날개를 달다 김현정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고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 관련 카페에서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오늘의 주인공 김현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꼭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김현정 씨는 소액이지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김현정 씨의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보실까요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대학 시절 그냥 수업만 들으면서
별로 한 게 없는데 이제 곧
졸업이라고 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찾는 곳은 인터넷
취업 카페인데요,
저도 그곳에 가입해서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려고 했죠.

인터넷 카페 스터디 모임에서 벌어진 황당한 경험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과 통상학을 전공한 김현정 씨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휴학을 하지 않고 4년을 잘 다닌 후 곧바로 졸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그냥 수업만 들으면서 별로 한 게 없는데 이제 곧 졸업이라고 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찾는 곳은 인터넷 취업 카페인데요, 저도 그곳에 가입해서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려고 했죠.”

기존 스터디 모임은 이미 멤버 구성이 끝난 상황이었기에 신생 스터디에 가입하려고 생각했다는 김현정 씨.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의심 없이 냈다고 합니다.

“가입비를 내고 난 후에 모임장에게 일정을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두절이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였죠. 솔직히 말해서 황당했어요. 5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절박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털어 버리려 했으나 김현정 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정보를 찾는 김현정 씨의 눈앞에 취업성공패키지가 눈에 띈 것은 그때쯤이었습니다.

꿈에 날개를 달아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취업아카데미

김현정 씨는 당시 믿을 만한 정보를 찾고 싶었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취업에 관한 정보는 너무 많았고 그중에 어떤 것이 믿을 수 있는지 기능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었다고 해요.

“제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선택하게 된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사용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형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김현정 씨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프로그램을 알았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김현정 씨가 다니는 학교에 취성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2단계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실습이 끝날 때쯤 채용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리서치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지원을 하게 됐죠.”
 인연이 되었는지 김현정 씨는 그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고 해요. 2년 차, 아직 까지 배워야 할 것은 많지만 리서치 업무에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리서치는 정말 다양한 일을 접할 수 있어요. 짧은 건 몇 주, 긴 건 몇 달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개발 지역, 국내의 지식 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 등이 그것이죠.”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기에 재미있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모든 보고서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보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획이나 전략을 세울 때 근거가 되는 자료는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근거를 찾는 거죠.”
 여러 가지 분야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공부는 필수라고 하는데,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김현정 씨의 성격과도 잘 맞다고 합니다.



마케팅 리서치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김현정 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리서치 업종의 큰 장점으로 ‘여자가 일하기 좋은 직종’이라는 것을 꼽습니다. 통계나 프로그램을 잘 알고 분석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맞다고 해요.
 “저는 직종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잘 맞고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업계에 있으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김현정 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나라에서 하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하는 각종 교육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업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오는 신입들은 단순한 반복적인 일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배우는 속도가 정말 달라요.”
 김현정 씨가 취성패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만난 건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길을 알고 내일을 향해 꾸준히 달려 나가는 김현정 씨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업, 사업주 단체, 민간우수 훈련기관 등이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
- 지원내용: 학점 인정, 참여기업 취업 연계, 무료 수강 등
-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자세한 모집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워크넷(www.work.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2, 8275, 8279)에 문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만 18~34세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자기진단, 훈련중심의 2단계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여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 지원내용: 1단계 수료 시 식비·교통비 지원, 2단계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지원, 3단계 참여 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집단 상담, 취업 연계, 훈련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홈페이지(http://www.work.go.kr/pkg/young/index.do) 확인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을 국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김현정 씨는 취성패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상담사는 김현정 씨의 성격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고 해요.

“가장 끌렸던 건 2단계였어요. 저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직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관련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 중에 마케팅 리서치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리서치 업계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김현정 씨가 관심은 있었지만 선불리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였습니다. 상담사에게 물어 보니 2단계 교육과정을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연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던 김현정 씨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교육을 듣게 됩니다.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3주 정도 실습을 했는데, 교육을 정말 고등학교 수업하듯이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실무를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있었죠.”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들이 나와 알고 싶은 내용을 쏙쏙 골라서 얘기를 해 주니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취업까지 연계된 실습

김현정 씨는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의 일환으로 실습을 3주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실습을 나갔던 업체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다 일본·ASEAN 해외취업 정보박람회

지금까지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직자들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와 면접 등을 진행하는 박람회가 따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 고충을 덜어주고자 지난 12월 1일 코엑스에서 이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일본·ASEAN 해외취업(K-Move) 정보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의 향연이 가득했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모든 것을 망라한 박람회가
열리게 되어 청년들이
해외로 가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직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보 한마당

지난 12월 1일 금요일 오전, 코엑스 Hall D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무역 인력 채용박람회와 일본·ASEAN 해외취업(K-Move) 정보박람회 합동 개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행사는 해외취업 정보와 국내 및 해외기업의 면접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등 구직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10시부터 내외 귀빈을 소개하며 개막식이 시작되었는데요,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주최한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고용정책실장도 행사의 취지와 소감에 대해서 인사를 했어요. 임서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정보를 주는 행사와 박람회가 따로 진행되어 구직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고 말씀을 열었어요.

“모든 것을 망라한 박람회가 열리게 되어 청년들이 해외로 가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내외 귀빈들의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일찍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온 참석자들로 북적였어요.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

이번 일본·ASEAN 해외취업(K-Move) 정보박람회는 일본관, ASEAN관, K-Move스쿨관 등 3곳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어요. 바로 옆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에서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아세안 기업 등 온·오프라인 250개사가 참여하여 큰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해외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은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해외취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게 되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개인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에 취업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해외취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따로 일본관을 두었는데, 다양한 일본 취업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관에서는 일본 리쿠르트사의 구인업체 채용 상담이 진행되었고 JLPT 등 일본 취업 시 요구되는 일본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안내 받을 수 있었어요. 체험관에서는 모의 면접과 일본어 이력서 첨삭, SP(인적성검사) 강의 및 문제 풀이가 진행되었고 세미나실에서는 일본 취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SEAN관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 관한 취업 내용을 얻을 수 있었는데, 현지 구인기업 지원 방법 정보와 구직자 역량 평가, 영문 이력서 첨삭 등을 받을 수 있었어요.

K-Move스쿨관에서는 K-Move스쿨 운영기관 홍보 및 교육과정 안내를 진행했고, 정부지원 사업 안내 및 부대 행사관에서는 청년지원정책 안내와 국내 취업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도 진행되었답니다.

행사는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으로 이루어졌는데,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부대행사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취업자들을 돕기 위해 참여한 기관 및 기업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였던 공단 최초로 대리는 이번 행사를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행사'라고 규정 짓기도 했어요.

"이번 해외취업 정보박람회는 수익이 없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개최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리쿠르트 회사들 역시 컨설팅 비용 등을 받지 않고 무료로 참여해 주었어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리 추구 없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취업 정보박람회는 2016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일본 해외취업 정보박람회로 일본 해외취업에 대해서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용 기회와 정보 안내를 동시에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올해 한국무역협회와 동시 개최를 기획했다고 해요. 이에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정보 및 K-Move스쿨 사업 안내까지 추가하여 행사 규모를 확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해외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은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해외취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죠. 하



지만 정부에서는 사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본인의 역량을 높게 평가 받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청년들에게 알리고자 행사를 개최한 것이죠."

최초이 대리는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많은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 반가워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Interview

일본은 기회의 나라,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이ナビ 코리아 김보경 대표

마이ナビ는 우리나라의 잡코리아와 같은 취업 정보 플랫폼 회사입니다. 하지만 잡코리아와는 조금 다르게 기업의 채용에 대한 토탈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인데, 현재 일본 내에서 사원 수 8천 명, 67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ナビ 코리아 김보경 대표에게 일본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 보았습니다.

Q 일본 취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일본인과 동등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나가는 등 일본을 기반으로 해외까지 진출할 수도 있지요. 특히 일본은 신입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외국인도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Q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신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30세 이전인 사람이 가장 좋아요. 자격증이나 유학 경험 등 상관없는 스펙을 쌓기보다는 일본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일본 취업 시 고려해야 할 게 있을까요?

A 타 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조직문화는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세세한 보고를 해야 하죠.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하지만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회사든 신입으로 들어갔으면 초반의 3년간은 그 회사의 시스템을 익히는데 투자해야 하고 4~5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다 보면 자신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Q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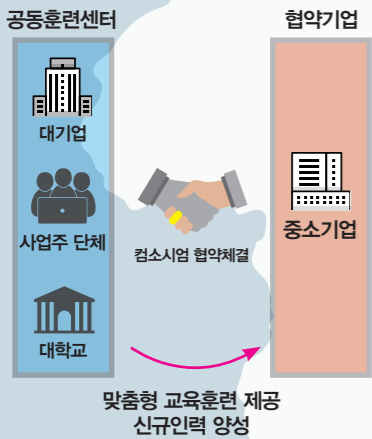
A 내가 왜 일본까지 가서 취업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일본'이라는 나라에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생겼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세요. 모든 것을 배우다는 생각으로 도전한다면 길은 열립니다.



대기업 부럽지 않은 인재 양성을 시작하세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인력이 커야 기업이 크고, 기업이 커야 국가경쟁력도 커집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와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참여하고, 대기업은 공동훈련을 시행하고, 국가는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요.
결국 국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업, 그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 강숙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란?

뜨거운 교육열기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
급인력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은 인력난과 인재 부족을 계속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높지만 기업에 필요한 능력은 부족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
기업은 좋은 시설과 시스템으로 인재를 키워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인재 양성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큼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
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을 키우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교육훈련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
소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지원과 체계적 교육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기업들이 우수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 및 지원에 정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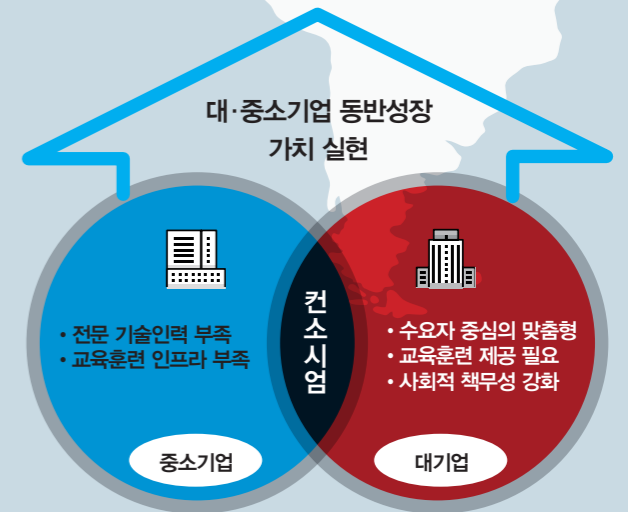
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나서는 상생협력 사업인 것입니
다. 자체교육 팀 및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장이 마련되는 것이
니까요.

누구에게 좋은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2001년도에 대우조선해양 등 6개의 기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현재
는 2백여 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사업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훈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좋은 이 제도는 오직 중
소기업만을 위한 사업인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
서 대기업들도 혼자 생존할 수는 없어요. 실제 중소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이 많
거든요. 그러니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취해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이로써 국가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는 이 사업을 통해 상생의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
업을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통해 상생의 인력양성생태계를 구축
할 때 국가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상생의 가치를 인정해 상생협력에 하는 대기업 등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통해 상생협력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습니
다. 또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는 훈련시설 및 장비의 경우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운영비는
4억 원까지, 훈련프로그램 개발비는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기관은 분야별로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포스코, 현대엘리베이터, 삼성중공업, LG
전자, 아모레퍼시픽,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운영기관의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어요. ①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질 높은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원', ②그린산업 및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특정 산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전략 분야 인력 양성', ③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지역 공동훈련' 등이죠.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지역에 기반한 인재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의미이며, 인력들을 고급화해 중소기업은 물론 산업 기반까지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공동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제공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실제 이 사업의 성공사례는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코오롱테크컴퍼지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항공기나 잠수함, 로켓 등에 쓰이는 복합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직원교육에 큰 의미와 가능성을 두고 있던 중 현대로템의 컨소시



엄 교육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방문교육을 진행했지요. 직원 대부분은 이 교육과정을 거쳤는데요. 놀라운 건 교육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교육을 반기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들어 어떻게 현업에 적용할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교육 후에 일을 하면서 현장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요. 게다가 문화활동 등의 교육도 있어 재미있게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회사의 이런 훈련에 만족한 직원들은 그만큼 애사심도 커졌다고 고백합니다.

회사는 교육효과를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교육예산 절감, 직원만족도 향상, 수준 높은 업무 개선 제안. 이렇게 눈에 띄는 효과로 인해 앞으로의 훈련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이제는 누구도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인력 역시 상생협력의 틀 속에서 합의와 소통을 통해 키워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인력 양성과 상생협력의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 이 사업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c-hrd.net



기업과 학습근로자,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실현하다

(주)삼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잘 양성할 수 있을까?” 이는 기업이 품은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아닐까요?

우수한 인재를 찾는 일 못지않게 맞춤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 또한 어렵기 때문이지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편이므로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의 명쾌한 해답을 일학습병행제에서 찾은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삼천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삼천을 만나봅니다.

글 김주희 사진 이지수



무결점 품질로 탄탄히 쌓은 신뢰

(주)삼천은 1997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반도체 CMP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 평탄화 작업 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리테이너링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대표 강소기업입니다. 제조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술력과 품질일 것입니다. (주)삼천이 업계에 탄탄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완성도 높은 품질이지요. 자체적으로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한 공정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해 무결점 품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또한 놓치지 않고 있지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차세대 산업 융합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합니다. (주)삼천이 ‘사람’에 집중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조대훈 부사장은 제조업의 특성상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제품 대부분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초정밀 제품이다 보니 작업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기술이 필요해 경력자를 채용하면 기술을 배운 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현장 적응을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차,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산학협력2팀 주상용 팀장님의 소개로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도입하게 되었지요.”

실무 맞춤형 일학습병행제로 효과 Up!

2015년 10월, 신입사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라는 열쇠를 꺼내든 (주)삼천. 중소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들에 비해 급여, 복지, 작업환경 등이 열악할 수밖에 없기에 입사 후 1년의 기간이 장기근속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통해서 회사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지향하는 지점은 바로 실무 맞춤형 교육과 기존 직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사 실무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많은 협의를 했지요. 또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직원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 기업현장교사와 학습근로자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입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직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프트랜딩 접근 방식을 통해 실무 적응 시간을 앞당기고 업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주)삼천은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통해 직무 관련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능력, 직장 예절 교육 등의 다채로운 교육과 연계해 회사에 필요한 기술형 인재 양성을 이끌었습니다. 훈련 직무는 기계 가공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레벨 3 수준의 기술인 육성을 훈련 목표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님 등 지역 내 전문가 3명과 팀을 구성해 개발했지요. 세부 프로그램별로 운영 로드맵 및 목표 수준을 정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과정은 OJT(현장교육) 77%, OFF-JT(현장 외 교육) 23%로 편성했는데요. OJT는 기계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현장 적응을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차,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산학협력2팀 주상용 팀장님의 소개로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도입하게 되었지요.



OFF-JT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님 지도하에 CAD/CAM 교육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대훈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기업이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두 갖출 수 없잖아요.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이끌어주니 교육 효과가 더욱 컸습니다. 특히 회사 내에 표준화되지 않은 도면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사전 협의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교육을 제안하곤 했지요. 특히 컴퓨터응용기계과 계상덕 교수님께서 풍부한 경험치와 믿을 수 있는 교수법으로 학습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주)삼천은 단발적인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또한 중요시합니다. 학습 근로자가 교육을 통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 및 평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직원이 계속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외 교육 수강 기회는 물론 상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지요.

신입사원 및 기존 직원 모두에게 기본 좋은 변화

(주)삼천은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 중심의 3조 교대 근무체계를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상주 근무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 효과가 상승한 건 물론 업무 효율성이 20%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체계 변경으로 평균 조업시간은 44%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월 평균 2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은 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학습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기존 직원들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는데, 도면 해독 능력, 정밀 측정 능력, 기계 조작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업무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술 역량이 상당히 평준화된 셈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품질 문제를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이지요. OJT 시간 준



《일학습병행제》

–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량이 적은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했는데 급한 업무가 발생하면 수시로 OJT 시간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선학습 후작업’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후, 교육 시간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하나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통한 결과요. (주)삼천은 지난 9월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선도기업으로 나아가다

(주)삼천이 일학습병행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에는 기업 차원의 지원과 학습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밑바탕이 되었지만, 경영진의 뜨거운 열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영진의 교육 의지와 교육의 철저한 이행, 지역 내 산학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교류 체계를 탄탄히 구축한 덕분이지요. 학습근로자의 OFF-JT를 담당한 한국폴리텍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과 계상덕 교수는 경영진의 열정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훈 부사장님의 경우 학교에 수시로 찾아오셨어요. 현재도 일학습병행제를 직접 챙기고 관리 및 감독을 하시지요. 수업 커리큘럼이나 교재에 대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주)삼천은 일학습병행제 도입 및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신입사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핵심 인력으로 원활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조대훈 부사장은 앞으로 일학습병행제의 폭과 깊이를 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회사의 미래성장 엔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 2기 학습 결과 장단점을 분석해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론 및 실습 교재를 새롭게 개발해 학습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발판 삼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통해서 기업 발전은 물론 좋은 인재 양성 및 성장의 밑거름을 꾀한(주)삼천. 기업과 학습근로자 나아가 기존 직원들까지 모두가 더욱 윈윈하리란 확신이 듭니다.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복지 좋은 기업 한국도키멕주식회사

중소기업의 아쉬운 점을 꼽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연봉 그리고 복지입니다. 업무 강도는 세지만 낮은 연봉과 부족한 복지로 인해 구직자들 역시 중소기업은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여기 대기업 버금가는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년에 상관없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게 하는 평생 직장을 추구합니다. 바로 유압기기 전문회사인 한국도키멕주식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이지수

유·공압기기 국산화를 선도하는 기업 한국도키멕주식회사

1998년에 창업하여 올해로 20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한국도키멕주식회사(이하 한국도키멕)는 유압기기, 공압기기, 실린더, 로봇자동화 라인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우수 제어기기 회사인 TOKIMEC INC.(현 TOKYO-KEIKI)의 투자 법인으로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일본을 비롯 유럽 등의 회사와 기술 및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유압기기 선두 메이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은 유압기기 부품 수입과 생산 판매로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의 비율이 반씩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도키멕의 유압사업부문 부문장을 맡고 있는 김유덕 상무이사의 말에 따르면 '수입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인 회사'라고 합니다.

“유압 부품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생산됩니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기계들이 다르고, 그에 따른 부품들의 규격 역시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만도 100여 가지입니다. 전량 국내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회사들도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항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들을 국산으로 대체시킬 만큼 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 즐거운 분위기

한국도키멕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처음 수입 유통업체로 시작하였지만 수입품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 상품을 우수한 국산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고, 자동화 설비를 갖추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영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시장 장악력도 높고 업계 내에서 회사 인지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지요.”

김유덕 상무이사는 한국도키멕의 조흥래 대표이사 역시 이러한 성장의 발판에는 ‘직원’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혜택을 같이 누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FUN)경영을 핵심적인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내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일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도키멕은 구성원과 회사,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비전과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계층별 간담회도 진행하는데, 특히 대리 이하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인사 서비스를 통해 지방 사업장에서 인사 제도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설명회를 요구하면 방문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마음 페스티벌, 워크숍 등 상시 혹은 수시로 사내 이벤트를 진행하여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도키멕은 취급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사내 강사를 육성해 교육에 투입하여 자발적이고 즐거운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일단 고용이 안정되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함께 나눈다! 사원을 위한 복리후생

한국도키멕의 복리후생은 특별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사원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계 사업의 특성상 이익이 많이 남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6%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전 직원에게 상여를 주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6%까지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격려 차원에서 상여를 지급하기도 했어요.”

한국도키멕의 복리후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자녀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자금 모두 지원합니다. 각종 경조사에 경조금이 나가고요, 사원들이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학원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여학 및 회사 업무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면 자격증 수당이 따로 나와요. 대명 리조트를 이용 시에는 할인도 되고요, 회사 내 동호회 정기 모임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에는 격려금도 지급됩니다. 우수사원과 장기 근속자 지원도 있죠.

“저희는 각 직무에 전공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문 분야의 전공일 경우 우대사항은 있지만 문과생의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지역에 있는 지사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기숙사와 통근버스 지원도 합니다.”

한국도키멕의 초봉 역시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봉 협상 역시 꼬박꼬박 진행한다고 해요. 특히 한 번 입사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본인이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년인만 60세를 지키는 것은 물론 정년을 넘어서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계약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일단 고용이 안정되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 등을 통해 양질의 기업정보를 발굴·제공하고 있는 제도로 2017년 현재 1,117개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선정되었다.

현재 한국도키멕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시급한 직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주거로 인해 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를 대신 내 주는 등의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더 큰 내일을 꿈꾸기 위해

현재 한국도키멕은 더욱 크게 도약하기 위해 대구에 6,200평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해요. 기존의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신사업에도 역량을 투자할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도 10여 명의 채용 계획이 있어요. 저희는 주력 상품인 유압기기뿐만 아니라 실린더, 해양선박, ESS시스템, 로봇 자동화 등으로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사업에 역량을 발휘하려면 좋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도키멕은 이직률이 낮다고 하는데요, 영업부서, 관리부서, 공장, 연구소가 모두 힘을 합쳐 한 고객을 상대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결속력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2020년에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현재 진행하는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함께 나누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더욱 고민하는 회사, 그리고 직원의 평생 고용까지 보장해 주는 회사라면 누구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답게 직원과 회사가 같은 미래를 보며 발맞추어 나가는 한국도키멕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선도한다 모바일 광고기획자

유럽 각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스웨덴 이지파크 그룹이 2017년 11월 12일(현지 시간) '2017 스마트 도시 지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은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10점 만점에 9.91점을 받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에 올랐죠. 스마트폰의 시대를 맞아 웹브라우저보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 모바일 광고 시장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광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모바일 광고

2009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기기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등장과 미디어 콘텐츠의 제공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은 새로운 마케팅, 광고, 미디어 플랫폼으로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이후 침체되었던 광고 시장에 모바일 광고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제광고전 사회에서도 모바일 분야가 따로 생길 만큼 모바일 광고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고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광고와 콘텐츠를 적절히 결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광고를 기획하는 모바일 광고기획자

모바일 광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바일 광고기획자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모바일 광고기획자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캠페인으로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면 인지도, 클릭수, 웹사이트 방문 횟수, 문의 전화 수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최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죠. 광고주가 원하는 모바일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팀원 및 광고주와 소통하고 모바일 광고의 형태, 타겟 활용 매체 등에 적절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바일 광고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고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광고와 콘텐츠를 적절히 결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는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껴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획자가 적절하고 알맞은 시기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모바일 광고만 특화된 회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모바일 광고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광고를 병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모바일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의 젊은 층이 많습니다. 기획자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총괄과 클라이언트를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일과 관련된 시간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업무시간 외에도 미팅이 잡히는 경우도 많고 필요에 따라 야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에 대한 이해와 광고 경력이 있으면 도전할 만한 분야
모바일 광고에 관심이 있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면 광고 관련 전공자가 유리합니다. 공모전 입상 경력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기존의 기획 전문가나 모바일 혹은 광고 업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진입하기에 수월합니다.

모바일 광고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떤 광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평소 관심 있게 지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뉴스와 책을 통해 계속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와 그에 따른 광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모바일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더욱 발전할 분야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 중 젊은 층은 SNS, 검색, 쇼핑, 콘텐츠 이용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특히 기존의 방송, TV, 신문 등의 매체 등도 모바일로 이용하는 등 기성세대와는 다른 매체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죠. 현재 모바일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향후에는 구글글래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더욱 대중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수요와 역할도 다양해질 예정이죠.

현재 모바일 기기 활용 시간이 PC 사용시간을 크게 앞질렀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온라인 시장의 광고 수요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타깃을 특정짓기 어려웠던 전통적인 광고와는 달리 모바일 광고는 특정한 타깃에 집중할 수 있다는 탁월한 광고 효과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바일 광고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알리려는 시도는 늘어날 것이고 이에 특화된 모바일 광고기획자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꿈꾸다 셰어하우스 우주

대학에 합격했거나 취업에 성공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비용의 집들이 많죠. 이러한 20~35세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저렴한 보증금과 합리적인 월세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사회적기업 셰어하우스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셰어하우스 우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우주

셰어하우스 우주의 김정현 대표는 스타트업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업하기 전에 보청기 생산시스템을 만들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돕는 소셜벤처 딜라이트도 창업했다고 해요. 하지만 대상이 주로 노인들이어서 청년들이 그분들의 속 사정을 모두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딜라이트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에 매각한 후에 본격적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이소현 마케팅 팀장의 말에 의하면 '당시 대표님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회의를 하던 도중에 인턴 한 명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월세가 너무 부담된다는 말이었어요. 당시 청년 주거문제가 화두에 오를 때였고 그러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접근을 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죠."

우주는 그렇게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찾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나가는 주거비용에 대한 걱정이 등록금 걱정보다도 더 크다는 걸 발견했고,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데 반해 주거 만족도는 상당히 낮다는 점을 파악하게 됐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 형태', '함께 하는 공간' 등을 목표로 공동주거, 셰어하우스를 기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우주라는 이름도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의 조합인데요, 함께 사는 우리들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정립한 우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셰어하우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정립한 우주는 처음 시작한 일이었기에 착오도 많았다고 해요.

"저희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타깃층인 20~35세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죠."

셰어하우스 우주는 쉽게 말하면 공동주거의 형태입니다. 집을 빌려주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을 모집하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집을 빌려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하죠. 기숙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금이 없는 등 그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임대인들은 다양한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일주일 평균 50건 이상, 많게는 100건 이상 연락이 오는데요, 해외에 가야 하는 분들이나 큰 집이 필요 없어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들이 연락을 주기도 하죠. 저희 셰어하우스 우주의 홈페이지에 임대문의를 할 수 있는데 그곳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로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셰어하우스 우주에는 사업개발팀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임대인과의 계약, 집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한다고 해요. 만약 적당한 주택이 있으면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집이 마련이 되면 입주신청을 받아요. 입주신청은 셰어하우스 우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희망 지역의 담당 커뮤니티 매니저가 연락을 하여 입주인과 직접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죠."





우주의 평균 계약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후에는 2~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장기 계약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했어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집을 얻을 때 가장 부담이 심한 것은 아무래도 보증금일 수밖에 없거든요. 몇 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보증금은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우주는 보증금을 월세의 2배로 책정했습니다.”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2호선 중심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여성 입주자가 대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도 최대한 고려했다고 해요. 지하철역과 최대한 가까우면서 유흥가와 떨어져 있는 주택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맞이하는 집이 우주일 수 있잖아요. 집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우주에서는 반전세 제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1천만 원이 오르면 월세 6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휴식의 공간 우주

우주는 20~35세의 청년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은 화제와 관심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공동으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기엔 우주에서의 화합은 중요하다고 해요.

직장인이 많은 지역과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강제를 하지는 않지만,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규칙을 지키며 원만하게 같이 있는 것이 목표예요.

“저희는 기숙사나 단기 임대 같은 느낌의 집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집은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공동으로 살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원룸과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셰어하우스 우주에서는 이를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월 1회 밤이나 커피를 같이 하거나 공연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모임에서 주거 규칙을 리뉴얼하고 신규 입주자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우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우주인 연말파티도 진행하고 있어요.

“직장인이 많은 지역과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강제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규칙을 지키며 원만하게 같이 있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집이나, 요리를 함께할 수 있는 집. 요즘에는 러닝하우스를 콘셉트로 하우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집은 휴식의 공간이라는 편리성을 놓치지 않는다고 해요. 젊은 여성들의 취향에 맞춘 인테리어와 편리한 동선 등이 그것이지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 CS 팀에서 접수를 해요. 집수리나 하자 보수 같은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하죠. 우주에서 살고 있는 동안 집에 관한 문제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바꿀 때까지

셰어하우스 우주는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공동으로 진행한 11만 원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입니다.

“월세 11만 원에 셰어하우스에서 살 수 있는 프로모션이었는데요, 2천 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몰렸어요. 그중에서 공동생활 경험, 지방 친구 우선 등을 고려하여 50명을 선별했죠.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취지의 공동 프로모션은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현재 셰어하우스 우주는 올해 상반기에 100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에 맞추어 단순히 집만 셰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편리할 수 있도록 집보관, 이사, 청소, 음식 배달 등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의식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셰어하우스는 기존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셰어하우스 전용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는 셰어하우스 전용 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연세대 인근에 오픈한 29명 규모의 셰어하우스처럼 중 규모의 셰어하우스도 더 많이 오픈할 예정이에요.”

셰어하우스 우주는 단순히 청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 생애주기별 상품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사는 셰어하우스를 생각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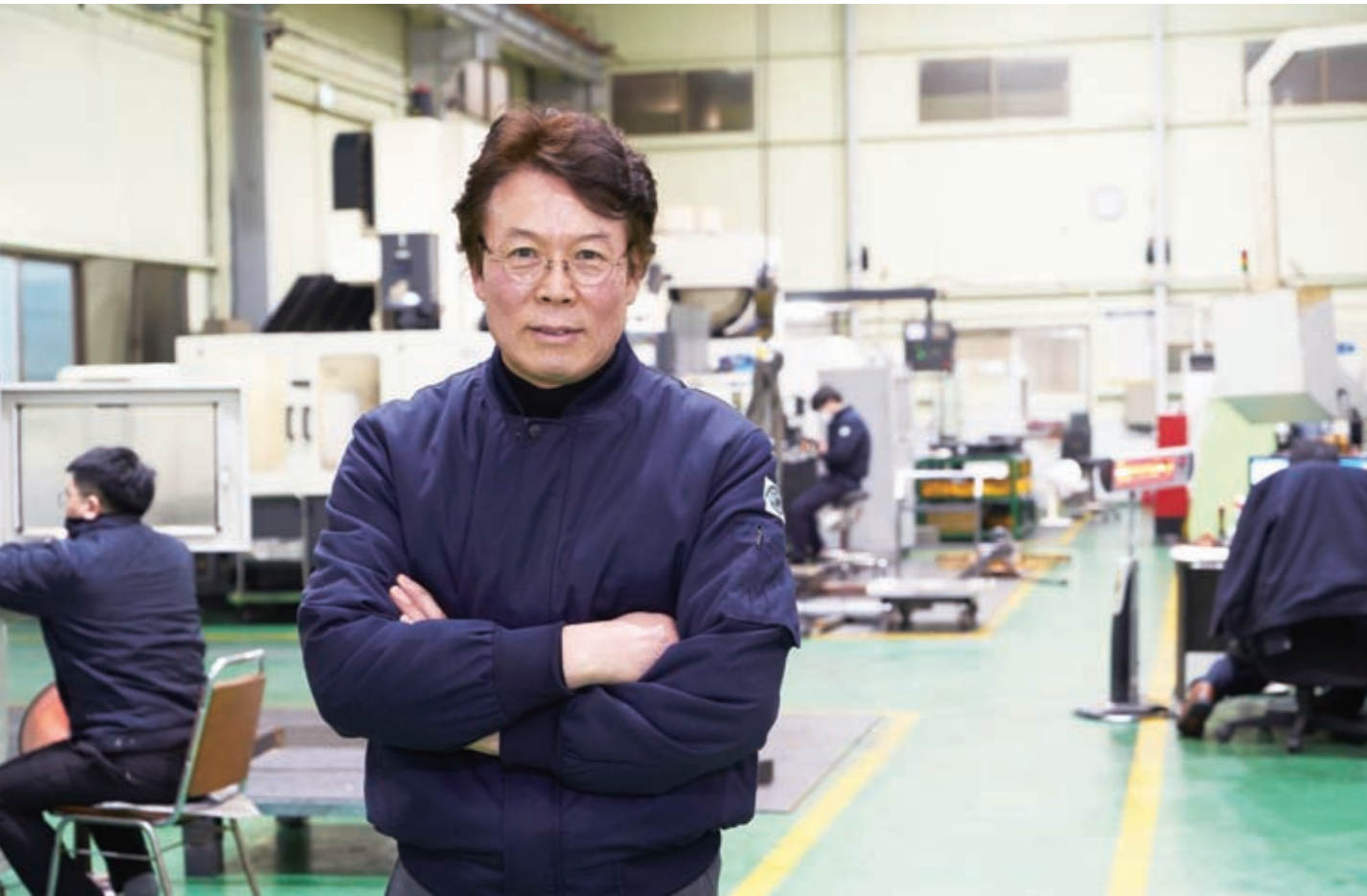
셰어하우스 우주는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확실히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우주의 성공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셰어하우스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죠. 이소현 팀장의 말처럼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주거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을 꿈꿔 봅니다.



손끝에서 완성되는 제품의 디테일 (주)세일금형 오세일 대표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지난해 모델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올해 신상품은 세련된 곡선과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백색 가전의 디자인을 결정짓는 제품의 외관은 바로 프레스 금형에서 만들어집니다. 산업의 기반이지만 아직은 생소한 프레스 금형.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 (주)세일금형의 오세일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금형기술 개발과 품질개선에 매진해 조금씩 수주가 늘어나며 2009년 법인으로 전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뎌 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주)세일금형은 프레스 금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2001년 창업한 이래 전자제품 및 자동차 금형을 몇 차례 하청 받아 제작하며 금형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 신속한 납품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그 결과, 대우동부전자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창업 후에 금형 기술 인력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금형산업의 발전과 회사 성장의 발판은 금형전문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청년 기술인력 양성 및 우선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한데요, 전남·광주지역의 4개 특성화고등학교와 도제훈련학습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2014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Q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먼저 프레스 금형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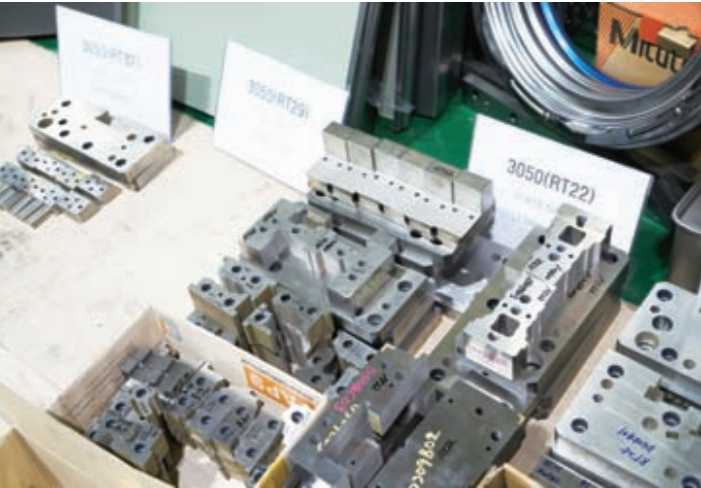
A 저는 일찍부터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현 나주공업고등학교)에서 금형 기술을 배웠죠. 졸업 후에는 대우전자(주)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레스 금형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5년을 일하면서 금형 기술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시에는 제조업이 발달할 때라 일본 등 해외의 선진 금형 기술을 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IMF 등의 금융 위기로 대우전자(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금형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해 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2001년 (주)세일금형이 설립됩니다.

Q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 같아요.

A (주)세일금형은 2001년 12월에 문을 열었는데, 당시에는 직원도 없이 아내와 둘이서 40평 임대 공장을 빌려서 시작했어요. 전문 금형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디다. 하지만 저희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을 보여야 했어요. 고객사나 협력업체의 금형 개발과 품질·공법개선을 목표로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어요. 그렇게 금형기술 개발과 품질개선에 매진해 조금씩 수주가 늘어나며 2009년 법인으로 전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뎌 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Q 대표님이 생각하는 프레스 금형의 매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A 항상 새롭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매년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프레스 금형입니다. 현재 자동화된 기계로 가공을 하지만 기계가 나오면 부품은 사람이 조립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도 대로 만들었다고 해도 마감 처리가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 역시 사람 손으로 다듬어 주어야 하죠. 섬세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공정에는 꼭 필요합니다. 기술은 비슷하지만 디자인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물품을 완성시켰다는 생각과 세계에서 사랑받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금형은 저에게는 지금도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금형에 도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하다면 뛰어난 인재도 중요할 것 같아요.

A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금형은 정말 사람이 재산입니다. 금형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진득하게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한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금형 기술에 뛰어들다면 20대 중반에 이미 숙련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제품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그 과정에서 금형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축적된 자신의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금형 기술의 매력을 알게 하기 위해 도제학교, 병역특례 등을 통해 젊은 청년들을 금형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금형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 금형 기술은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려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도 금형의 매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저 금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리는 통통 붓고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완성품이 나올 때는 행복하고 새로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금형은 저에게는 지금도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금형에 도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대표님 같은 숙련기술자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제가 일을 배울 때와 지금의 기술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과정 한 과정을 따로 진행했다면 지금은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기계도 나왔죠. 공정은 단축되고 디자인은 더욱 섬세해졌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면 항상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가서 살펴 봅니다. 우리가 제작한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꼭 살펴 봐요. 그리고 전자제품 박람회에도 찾아가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공부합니다. 이 나이에도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금형의 매력이지요.

Q 대표님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A 2016년에 R&D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금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인데요, 공정 단축과 새로운 공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죠. 앞으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금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저희 (주)세일금형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때까지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정년을 두지 않고 자신이 은퇴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기술을 대물림해 주고 싶습니다. 제 기술이 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형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대물림되어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꿈입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빵의 마법 홍수민

하얀 밀가루가 노란 달걀과 버터를 만나서 찰흙 같은 반죽이 됩니다. 보슬보슬하게 날리던 가루들은 어느새 모양이 잡혀 가고 뜨거운 오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눈을 자극하는 멋진 모양과 입맛을 다시게 하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게 되죠. 이런 제과제빵의 과정을 '마법'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제과제빵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홍수민 씨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돈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보라고요. 그 말이 저의
등을 떠밀어 주었죠.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을 만나 꽃피우게 된 재능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홍수민 씨는 집안이 크게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인공와우 시술을 받고 적응도 좋았지만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했던 큰 비용 등도 생각해야 했다고 해요.

“저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 후에는 바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당시에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직장을 알아보던 홍수민 씨에게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보낸 안내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을 배워 직장을 찾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부감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애인들과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학교도 모두 비장애인들과 다녔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걱정도 잠시, 실제로 찾아가게 된 개발원은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해요.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직접 실습에 참여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개발원에는 전자과, 외식과, 전자처리과 등이 있었는데, 자신의 적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의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취업이 잘될 것 같은 전자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체험을 해 보니까 전자과는 저와 안 맞았어요. 외식과는 이름이 마음에 들고 체험을 해 봤는데 저와 참 잘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소질이 있다는 말도 해 주셨죠.”

생각지도 못했던 외식과에 진학을 해야 할 것인지 홍수민 씨는 3일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해요. 과연 이 길로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재미있다고 해서 직업으로 가져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돈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보라고요. 그 말이 저의 등을 떠밀어 주었죠.”

그렇게 홍수민 씨는 개발원의 외식과에서 제과제빵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질이 있었기에 수업을 금세 배웠다고 해요.



개발원 선생님이 대회를
나카자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다시
개발원에 다니면서 지방대회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죠.

힘들었지만 배운 점이 많았던 첫 직장

홍수민 씨는 개발원에 다니면서 선생님의 권유로 지방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처음 나간 대회에서 금상을 획득해요. 이후 바로 취업까지 성공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제과제빵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해 보는 일은 정말로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현장은 정말 교육을 받을 때와는 달랐어요. 바쁠 때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을 만큼 정신 없이 돌아가기도 했죠. 특히 후배들이 들어와도 금세 그만두는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어요.”

홍수민 씨는 냉동실에서 냉동 반죽을 1시간 내내 정리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던 경험도 말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장애인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았어요. 제가 일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일을 할 때 호흡을 맞추는 법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2년을 다니고 난 후 홍수민 씨는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은 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힘든 것도 이해는 하지만 같은 직종에 있는 이상 어느 직장을 가도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이 쉬운 줄 아느냐고요. 그 말에 고민이 많이 되었죠.” 하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버거웠던 홍수민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발원 선생님이 다시 연락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를 하자는 권유였다고 해요.

“개발원 선생님이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를 하자는 연락을 해 주었어요. 다시 개발원에 다니면서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연습에 매진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던 국제장애인기능경기올림픽

그렇게 홍수민 씨는 국가대표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주변의 응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국제장애인기능경기올림픽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되면서 힘든 점도 많았다고 해요.

“저는 다른 국가대표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과제빵은 기구가 크기 때문에 선수단 숙소에 있는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저는 혼자서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에서 올림픽을 대비한 훈련을 받게 되었죠.”

선수들과의 교감이나 대화를 할 수 없이 오롯이 혼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업은 배울 점도 많았지만 포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위원님은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의 오병호 이사장님, 부지도위원님은 같은 학교의 유건희·고재석 교수님이었어요. 세 분 다 제과제빵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 받으신 분들이었는데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저는 초콜릿과 설탕공예를 대회준비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 주셨죠.”

100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참여한 국제장애인기능경기올림픽 대회. 봄을 주제로 설탕과 초콜릿을 이용하여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당일 흥



수민 씨의 도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5시간 30분 동안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였는데요, 가스 인덕션과 전자레인지가 대회 당일 고장이 났어요. 초콜릿 색깔을 내는 도구도 고장이 났죠. 평소에는 5시간이면 충분히 끝났던 과제가 5시간 30분을 모두 쓰고 나서야 간신히 완성되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잘하고 있는데 자신의 도구만 문제가 생겼다는 속상함에 포기까지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과제를 끝내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은메달.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고 해요.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제과기능장을
획득한 사람은 있지만
여성 청각장애인이 제과기능장까지
된 일은 없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참 행복할 거예요.

내일 더 큰 꿈을 이룰 때까지

현재 홍수민 씨는 올림픽 이후에 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점에서 일을 하다가 집 근처인 수원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즐겁게 다니고 있다고 해요.

“저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제과기능장을 획득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제과기능장을 획득한 사람은 있지만 여성 청각장애인이 제과기능장까지 된 일은 없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참 행복할 거예요.”

쉬는 날마다 대전으로 내려와서 후배들에게 제과제빵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홍수민 씨, 아직은 부족한 자신을 믿고 따라와 주는 후배들이 고맙고 예뻐서 자신이 아는 것들을 최대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해요.

“제가 더 많이 성장하고 난 후에 가게를 차려서 장애인들과 같이 일해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국가대표까지 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장애인 역시 같은 사람이기에 똑같은 꿈을 갖고 있다는 홍수민 씨.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니까 이런 건 못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새롭게 찾아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홍수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홍수민 씨는 제과제빵은 마치 마법과 같아서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의 행복이 그녀의 작품을 맛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홍수민 씨의 큰 꿈에 응원을 보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꿈꾼 재도약 최경태

사람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질주하며 달리다가 어느 순간 조금 숨을 돌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죠.
여기 순탄하게 대기업 취업까지 성공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좌절해야만 했던 사람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나 재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게 된 최경태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료 제공 노사발전재단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안 될 거라는 마음이 반이었어요.
그래도 희망센터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장교에서 대기업 취업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던 인생

최경태 씨는 경주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전자부대에 들어가 작전장교로 보직도 마쳤습니다. 만기 전역 후에는 첫 직장인 대기업 취업에도 성공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가 담당하는 생산 부서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최경태 씨는 이 일로 인해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회사를 그만두고 난 최경태 씨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해 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전 의식으로 가득 찬 젊은 나이였던 그는 전공을 살려서 소독약품, 해충퇴치, 탈취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게 되죠. 하지만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최경태 씨는 결국 회사를 폐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개인사업체를 꾸려서 운영을 해 보았지만 역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새 희망의 끈,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된 최경태 씨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최경태 씨의 생각보다 취업의 문은 좁았습니다. 직종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생산관리직 외에 현장 근무에도 도전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생산제조 현장직도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력서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대표이사를 한 이전 경력 때문인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냈음에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계속되는 서류 탈락에 차츰 자신감을 잃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은 들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최경태 씨는 고용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얻은 정보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를 통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고배 끝에 시작한 재도약 프로그램

이대로 재도약의 기회는 영영 잡을 수 없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만 계속 커져 가던 어느 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담당 컨설턴트가 재도약 프로그램에 대해서 권유를 합니다. 컨설턴트는 최경태 씨에게 구직활동방법부터 마음가짐까지 취업에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교육을 신청하기는 했지만 최경태 씨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안 될 거라는 마음이 반이었어요. 그래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교육 첫날 실시했던 MBTI 검사는 평생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검사 결과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구직을 하고 있다는 어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였는지 분위기는 서먹서먹하고 무거웠다고 해요. 하지만 둘째 날부



처음의 어색한 마음은 없어지고
어느새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랐죠.

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3일로 구성된 재도약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금까지 들었던 교육과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아주 현실적인 것은 물론 실제 재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의 어색한 마음은 없어지고 어느새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랐죠.”

3일째 되던 날에는 처음 교육신청을 했을 때의 소극적인 자세는 사라지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해요. 실제 취업에 바로 영향을 주는 이력서 작성과 면접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왜 수많은 지원에서 탈락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원 분야에 맞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모의 면접으로 실전 준비를 하면서 당장 바로 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재취업전략 시간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을 새롭게 알게 되어 효율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장년인턴취업제도라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재도약 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의 변화관리, 역량진단과 취업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워크넷(www.work.go.kr/4060hope)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무이사로 재취업에 성공

최경태 씨는 재도약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 장년인턴취업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최경태 씨가 지원한 회사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담당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장년인턴취업제도에 대해 홍보를 한 회사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담당자 역시 장년인턴취업지원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경태 씨는 이를 통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선 채용되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되죠.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는 폐수처리약품전문 제조회사로 이전에 개인사업으로 진행했던 일과 연관된 업종이었고 관리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입사를 하게 된 최경태 씨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최경태 씨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교육을 들었던 재도약 프로그램 동기생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는 소망도 내비쳤어요. 자신의 사례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경태 씨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슈퍼맨들을 위한 육아 길라잡이 아빠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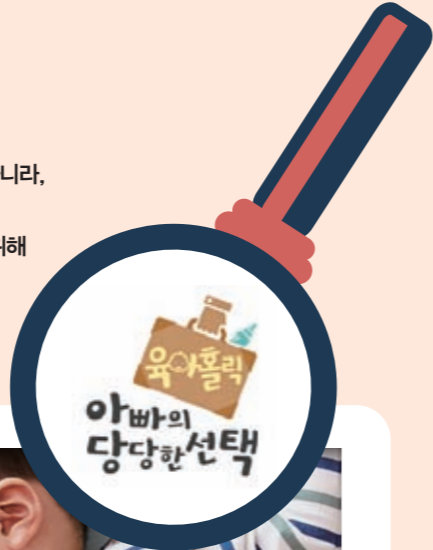
엄마들의 사회 참여만큼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들도 많아지는 요즘.

하지만 여전히 아빠육아휴직자는 상대적 소수여서 육아휴직 중 정보공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아빠 맞춤형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아빠넷'이 지난 11월 3일, 오픈했습니다. 아빠육아지원 온라인 플랫폼 '아빠넷', 그 출발선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강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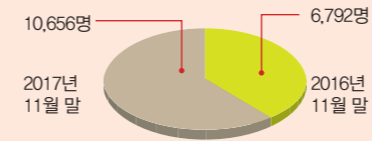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에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제공하고 있지요.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됐지만, 지난 9월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 9개월간은 40%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습니다. 상한금액도 기존엔 1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첫 3개월에 대해서는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고 있어요. 특히,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시 소득보전을 높여 아빠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에 더해, 최근 들어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17년 11월 말, 아빠육아휴직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통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및 한도>

기존	2017년 9월부터 상향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독일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으로 출산율도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독일에서는 일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은 아빠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아동 발달에 기여하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며, 세대 간 양성평등 규범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가사와 육아책임을 부모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내용의 가족정책 개혁을 추진했어요. 이미 10년 전인 2007년부터 실시한 이 개혁 조치로 독일은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도 상승 및 여성들의 출산율 증가라는 효과까지 톡톡히 보았답니다. 결국 2007년 이전에 3.5%에 불과했던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는 2014년 34%로 증가했고, 출산율도 최저치인 1.24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며 1.47을 기록했지요.

아빠육아휴직이 당당한 대한민국, 아빠넷이 만들어요

우리는 2017년 처음으로 남성육아휴직률이 10%를 돌파했지만, 앞서도 보았듯 여전히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미흡한 상황이긴 해요. 2016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45%, 노르웨이는 40.8%, 덴마크는 24.1%나 되거든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해결하고, 아빠육아휴직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고자 아빠넷을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얻고 이벤트에도 참여하세요

아빠넷은 '아빠넷 페이스북 페이지'와 '홈페이지' 2개 채널로 운영돼요. 지난 11월 3일 아빠넷 페이스북 오픈에 이어 12월 26일에는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답니다. 아빠넷은 매주 월, 수, 금 아래와 같은 콘텐츠를 발행해요.

월	• 아빠가 알면 좋은 건강상식 <건강하게 키우기> • 아이와 아빠의 감성과 소통을 위한 <토닥토닥 께안기>
수	• 모든 아빠들을 위로하는 그림일기 <한컷 아빠일기>
금	• 주말맞이 놀이/나들이 정보 <재밌게 놀기> • 반드시 알아야 할 육아휴직 정책정보 <제대로 알기>

아빠넷 페이스북 VS 아빠넷 홈페이지

'아빠넷 페이스북 페이지'는 '실시간 아빠참여 플랫폼'이에요. 팔로한 수요자에게 상시적으로 콘텐츠를 내보내며,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지요. 아빠육아 에피소드 공모, 아빠육아 사진전 등 알찬 선물이 함께하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아빠넷 홈페이지'는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이에요.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과거 콘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더불어 홈페이지에는 페이스북에 담기지 않은 심도 있는 정책정보부터 생생한 아빠육아수기까지 담겨 있어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이미 많은 아빠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빠넷. 아빠를 위해 개설됐고 아빠에 의해 더 풍성해지는 만큼 아빠넷은 많은 아빠들이 찾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아홀릭에 빠진 아빠들의 당당한 선택, 아빠넷으로 성공적인 육아휴직을 완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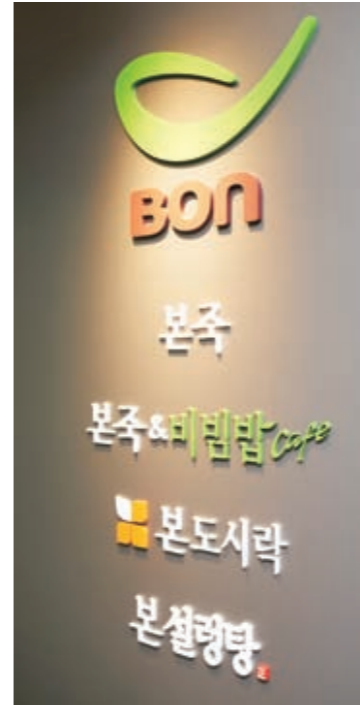
- ▶아빠넷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panet4you
- ▶아빠넷 홈페이지 : www.papanet4you.kr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본아이에프

일반적으로 직원의 복지는 회사의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고, 회사에 있는 시간은 짧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해 왔죠.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뒤집은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누려야 하는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순간을 즐겁게 해 주죠. 회사와 직원의 만남은 결혼과도 같다고 말을 하는 회사, 바로 외식 프랜차이즈 본아이에프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1,7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

본아이에프의 역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자였던 김철호 회장은 당시 IMF의 여파로 인해 하고 있던 창업컨설팅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때쯤 현재 본아이에프의 부회장인 아내 최복이 씨가 죽전문점이라는 아이টে으로 대학로에 본족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즉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본족으로 시작된 브랜드는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등 다양한 분야의 외식 브랜드를 선보이며 홈쇼핑과 마트, 온라인 물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족 1,400여 개, 본도시락 300여 개 등 1,7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죠.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본아이에프는 설립 이념부터 미션, 비전까지 선한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먼저 행복해야 가맹점과 협력사, 고객까지 행복이 퍼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초창기 직원 수가 많지 않을 때부터 직원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아이에프의 경영기획실 이성진 실장은 본아이에프의 설립 이념이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자체의 의미와 행복에 주안점을 두어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게 하는 것이죠. 회사라는 공간이 내가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운 곳이 된다면 일하는 것 자체를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성진 실장은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이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매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본아이에프에서도 희망직무조사를 통해 열정과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팀과 직무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일례로 지금 현재 인재개발팀 팀장 역시 매장관리직을 수행하다가 인재개발팀으로 왔습니다."

본아이에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신입사원이라도 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소신을 키우는 것이죠.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신입사원에게도 중요한 업무를 맡김으로써 기업의 권위주의를 해소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의미의 임파워먼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것

현재 본아이에프의 직원 평균 연령은 34세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고민이 시작될 나이입니다. 회사 역시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회사가 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되었죠. 최근 3~4년 전부터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



은 기본적인 국가 정책들은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하고 휴직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성진 실장은 이 같은 배경에는 직원들의 절반가량이 여성인 것도 원인으로 꼽았는데, 영업직에 남성이 많은 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여성들이 많기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창업자가 부부인데다, 회장님 역시 딸만 셋이다 보니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희 회사는 유리천장이 없고 직무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게 합니다.” 본아이에프에는 직원을 위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2주 유일무이 휴가, 리프레시 MT, 문화데이, 사내 연수원, 복지포인트, 사내 대출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 회사가 해 주는 작은 보상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직원의 휴가 등에 대해서도 본인의 결정이 우선시됩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결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스스로 조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 실장의 말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가정 양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서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는 것이죠.

“수요일 정시 퇴근, 기념일 정시 퇴근, 9시 후 회식 금지 같은 조항이 생긴 배경을 보면, 결국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만이라도 잘 지켜 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문제가 없는 문화를 가진 일터를 추구합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본아이에프는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일하기가 더욱 편하도록 사내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직원들을 위한 카페나 운동 시설 역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사의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도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꼭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도 해 주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본아이에프는 제도를 잘 갖춰 놓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지혜롭게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누구나 1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서 환경에 따라 신청이 눈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이 적용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 신청하도록 규정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고 싶어요. 맛있는 건강, 편리한 생활, 즐거운 여가로 이루어지는 삶이 그것이죠.”

행복한 사장님이 행복한 직원을 만들고 행복한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본아이에프, 직원을 채용할 때는 결혼을 한다는 개념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실제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것처럼 상대방의 재산, 학벌, 외모가 아닌 인품과 내(본아이에프)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본다고 해요.

“워라벨, 일가정 양립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직원이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면 불행하고 짧을수록 행복해진다면 그 일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는 일터에서 행복해야 가정에서도 행복하다는 기본 가치를 계속 추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일가정 양립은 시간적인 균형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행복의 균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는 본아이에프, 그 말처럼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이 아닌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본아이에프의 직원들처럼 일에서 행복을 찾아 가정에도 그 행복이 전파될 수 있는 날을 꿈꿔 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한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노사문화대상

지금까지 뉴스에서 노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있는 현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사측은 거절하거나 파업을 하는 현장 등 노조측과 사측은 대립을 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는 직장에서조차 대화와 협력으로 원만한 노사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사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글 노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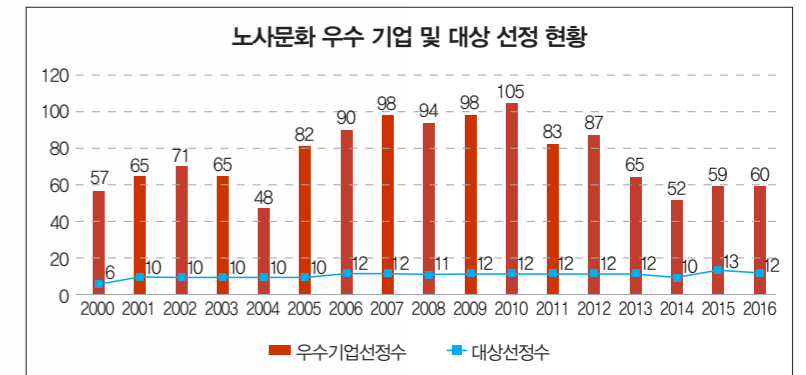
노사문화대상 신청 대상은 업종과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수한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면 되는데요, 자신의 사업장이 노사문화대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우수한 노사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

상생의 노사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1996년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노사문화대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신노사문화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노사문화대상 신청 대상은 업종과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수한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면 되는데요, 자신의 사업장이 노사문화대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한 기업들을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2016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총 1,278개사, 노사문화대상 총186개사 선정·시상



노사문화 우수 기업 신청 자격(2017년 기준)

- ①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가능
- ③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 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 ④ 2014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연도 노사문화 우수 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2017년도 우수기업 신청 가능

노사문화대상 신청 자격(2017년 기준)

2015~2017년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청 기업의 종류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② 사업장(공장 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
- ③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노사문화 우수 기업 · 노사문화대상 신청 자격 제외 사유

- 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 분류가 발생한 사업장
-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 기업 · 노사문화대상 신청 시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②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 명의로 신청
- ③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노사문화 우수 기업 · 노사문화대상 선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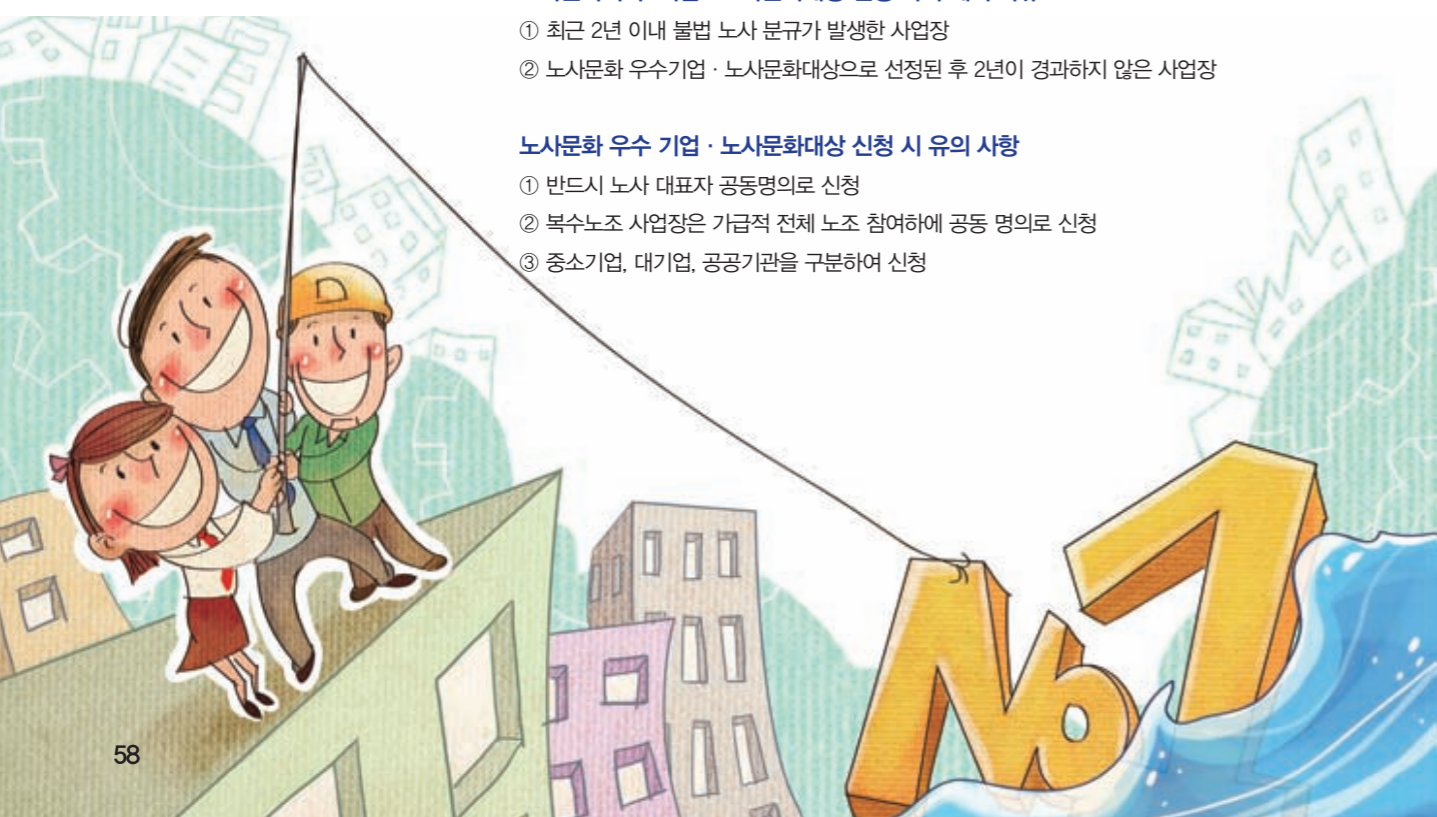
- ①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 ② 선정되기 이전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③ 선정 취소(우수 기업 선정 후 대상 심사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포함)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신청자격 박탈(소속 사업장이 선정 취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본사 소속 타 사업장도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④ 선정된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래의 우대조치 철회

기업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혜택

1차 서면심사와 2차 사례발표를 거쳐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가 되고 1년 동안 세무조사도 유예됩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금리도 우대해 주고, 신용평가 시에는 가산점 부여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정부공인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 지정업체 추천,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행정상 우대를 비롯해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도 받을 수 있죠.

어떤가요? 우리 기업은 정말 대화와 소통,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곳이라면 신청해볼 만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문화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장년근로자 스스로 건강 지키기!

산업현장에서 55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체력 관리도 중요해졌죠.

근로자도 스스로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작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년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하지근력운동을 소개합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년 근로자에게 필수인 근력운동!

근력(Muscular Strength)이란?

- ☞ 큰 외력을 발휘하거나,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 ☞ 근력은 약 6~18세까지 현저히 증가 후, 약 40세 이후 현격하게 감소하며, 근육이 증가하면 신체가 바른 자세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 일정한 폼(Form)을 형성할 수 있고 힘의 분배가 용이하며 피로가 적고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쉬운 하지근력운동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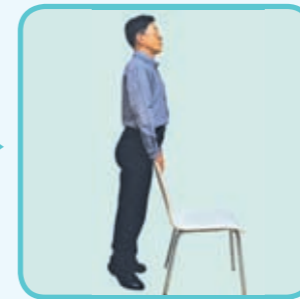
1. 힙관절 근력운동(Hip Flexion)

- ①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편히 둔다.
- ② 오른쪽 무릎을 편안한 상태로 최대한 들어올린 후 내린다.
- ③ 10회 반복한다.
- ④ 왼쪽도 똑같이 10회 반복한다.



2. 무릎관절 근력운동(Knee Extension)

- ①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편히 둔다.
- ②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편 후 5초간 유지한다.
- ③ 10회 반복한다.
- ④ 왼쪽도 똑같이 10회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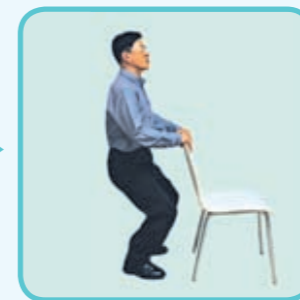
3. 발뒤꿈치 올렸다 내리기(Heel Raise)

- ① 의자를 잡고 선다.
- ②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린다.
- ③ 10회 반복한다.



4. 뒤허벅지근육 강화운동 (Knee Flexion)

- ① 의자를 잡고 선다.
- ② 오른쪽 무릎을 뒤쪽으로 최대한 높이 구부린다.
- ③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 ④ 10회 반복한다.
- ⑤ 왼쪽도 위와같이 반복한다.



5. 스쿼팅(Partial Squats)

- ① 의자를 잡고 어깨너비로 발을 벌리고 선다.
- ② 편한 상태로 최대한 무릎을 구부린다.
- ③ 양쪽 무릎이 서로 닿지 않게 한다.
- ④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 ⑤ 10회 반복한다.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자료 여기서 활용하세요!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디어 배송 서비스 활용하기

미디어 자료 비용 : 무료
미디어 배송 비용 : 신청자 부담(착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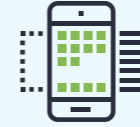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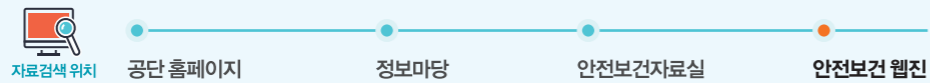


미디어 홈페이지(<http://media.kosha.or.kr>)에서 자료를 신청 해서 받아보세요.
포스터, 표지(스티커) 등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미디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현장에서 2~3일 이내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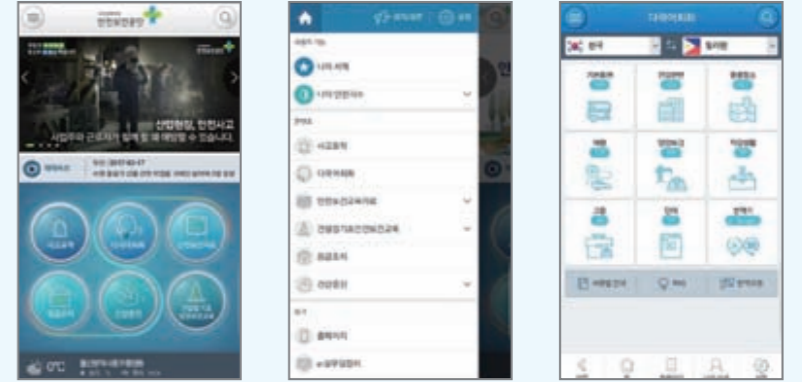
웹 매거진 'WiSH' (위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와 공단에서 발행하는 자료목록 등을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구글 Play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설치



다양하고 유용한 안전보건 자료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소개 version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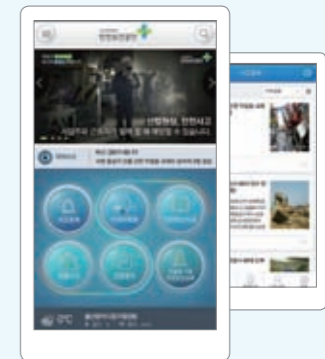
앱 설치방법

하단 QR코드를 QR코드 리더기로 스캔 후 설치

구글 Play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설치



※ 기타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고 포착

실시간 산업재해 속보 제공

응급 조치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응급상황 대처법 제공

건강증진

나의 건강 수준 평가, 중량물 취급 방법, 건강증진센터 안내

안전 날씨

날씨 변화에 따른 산재 위험지수 등 실시간 제공

다국어 회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13개국 1300개 문장 제공

안전보건 자료

재해사례, 전자책, 동영상 등 안전보건 자료 제공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조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안내

MSDS 요약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약 정보

Q 퇴직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A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며, 근로기준법 제 8조인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그 산정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식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 중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나 출장비 등 실비반상적인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① 매월 개인성과로 지급받던 인센티브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의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지급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 수준 등을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매월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었다 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금원으로 보입니다.



Q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원도 근로시간, 휴가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그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제법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공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의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법무 810-7975, 1968.5.3.)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해외에 있는지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과 분리된 해외 사업장에서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때 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0914).

반대로 국내 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 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나아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0914).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2017년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자 정부포상」 식을 개최하였다.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은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자(단체 포함)는 산업훈장 6명, 산업포장 7명, 대통령 표창 12명, 국무총리 표창 14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22명 등 총 61명이다.

수상자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정부 포상식에서는 IMF 당시 사재를 출연하는 등 노사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김용웅 KB오토시스(주) 회장(충남 아산시)에게 노사문화 유공 부문 금탑산업훈장이 수여(총 41명)되었으며 충청남도,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노사정 등에 대한 시상식(총 10개 지자체)도 함께 개최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7년 노사문화 대상」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구축해 온 노사문화 우수사업장으로 (주)레이언스 등 9곳이 수상하였다.

시상식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 하나하나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였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 계신 노사 모두가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상생 협력의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사라진다

—
2017.12.1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이창훈 사무관(044-201-3507)

1 정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등을 없애고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국토부, 공정위, 고용부 등 각 정부부처와 건설노조 및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136만 명)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 수준도 2016년 기준 전 산업평균의 78%인 월평균 267만 원으로 낮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 기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인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 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제조업의 33%밖에 되지 않는(한국생산성본부 2014)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 제도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노동자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립 예정

—
2017.12.13
여성고용정책과
오지영 사무관(044-202-7480)

2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내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2017년 11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2.6%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상반기에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현실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육아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
2017.12.15
직업능력평가과
최선용 사무관(044-202-7288)

3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3D프린팅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 및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12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상상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과정평 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1회 제한을 없애 취득 기회를 확대하였다.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

—
2017.12.15
청년취업지원과
김은화 사무관(044-202-7446)

4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 요건을 반영하여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기존과 달라진 점은, 청년들은 기업 선택 시 임금 외에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분야를 다양화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5~6월 동안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 높은 임금(22.3%) 외에도, 고용안정성(14.5%), 근로시간(12.1%)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3가지 분야의 우수 기업을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1,106개소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 326개소(29.5%), 서울 324개소(29.3%)로 수도권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2개소(5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21~50인 이하 기업이 426개소(38.5%)로 가장 많고, 51~100인이 249개소(22.5%), 101~200인이 178개소(16.1%)이다. 선정된 기업의 명단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페이지(work.go.kr/gangso)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우리 시대의 청백리 굶어 죽더라도 부정한 재산을 받지 않다 정봉

세조 13년(1467)에 태어난 정봉은 풍채가 늙름해 키가 8척이나 되고 식견과 도량이 청명하여 그의 숙부가 한 번 보고는 인재라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봉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않았다. 성종과 연산군, 중종에 이르는 시기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훈구파와 서서히 떠오르는 신흥세력 사림파가 대립하는 시기였다. 사림파와 맥이 닿아 있던 정봉 역시 관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아첨하는 자와는 일하지 않는다

정봉은 성종 17년에 진사가 된 후 연산군 10년에 교리까지 오른다. 하지만 곧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영덕에 유배되었다. 종종반정이 일어난 후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그를 불렀는데,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와 절친한 벗이었던 성희안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왕에게 건의하여 특별히 조정에 출사할 것을 청하였는데도 거절하였다. 그의 지인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시은숙배(謝恩肅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는 일하러 입궐했더니, 서대(犀帶) 벼슬아치가 두르던 띠를 두른 한 재상이 앞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숨을 죽이고 서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모습을 알아봤더니 바로 홍경주(洪景舟)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놀라 물러나서는 벼슬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홍경주는 종종반정으로 정국 공신에 오른 훈구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임금에게 아첨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봉은 임금의 옆에서 입안의 허처럼 구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 뒤 시골로 돌아가 벼슬에 다시 오르지 않고 생을 마쳤다.

굶어 죽더라도 부정한 자의 재물을 받지 않다

정봉은 천성이 매우 청렴결백하였는데, 심지어 집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부정한 자의 재물을 탐내지 않았다고 한다.

정봉이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정에는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인물은 간사하고 탐욕이 많으며 방자했는데, 적개좌리공신(敵愾佐理功臣) 난을 평정한 공신으로 조정에서

위세가 등등했다. 유자광과 정봉은 외가 친척이 되는 사이였는데, 정봉은 부득이하게 왕래할 일이 생기면 여중이 가기 전에 숙마(熟麻 삶은 삼 겹질) 끈으로 팔을 단단히 묶고, 묶은 자리에 표를 해서 보냈다. 그러면 여중은 묶인 곳이 아파서 그의 집에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여중이 돌아오면 비로소 그 끈을 풀어주었다.

한 번은 정봉이 출타했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의 부인이 생각다 못해 유자광의 집에서 식량을 꾸어왔다. 집에 돌아온 정봉은 쌀밥과 장국을 보고는 얻어온 곳을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식량이 떨어진 것을 알고 조처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죄이니 부인의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띄워 식량을 빌리고 부인이 쓴 만큼을 채워 유자광에게 돌려 보냈다.

명분 없는 부탁을 거절하다

정봉은 명분이 없으면 친구의 부탁도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정봉이 청송 부사로 있을 때 그의 친구인 성희안이 편지를 보내 잣과 꿀을 요청했다. 당시 청송은 잣과 꿀이 특산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었고 당시 관리들이 흔히 하던 관행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봉은 잣은 높은 산봉우리 위에 있고 꿀은 민간의 벌통에 있으니, 태수(太守)가 무슨 수로 얻겠느냐는 답장을 보낸다. 성희안 역시 이 편지를 읽고는 부끄러워하며 사과했다고 한다.

연산군 때의 권신 유자광과 외척이었던 정봉은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며 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일출 명소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가는 해를 배웅하고,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일출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각 지역의 일출 명소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제공(저작권자) 한국관광공사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일출의 최고 명소 동해안



바다를 향해 나 있는 소나무 한 그루의 운치 양양 하조대

하조대는 동해바다의 절경을 볼 수 있는 돌출된 만의 정상부에 위치하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절벽 위에 고고하게 솟아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이다. 원래는 천년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나무는 약 10년 전 이 소나무 사이로 뜨는 일출 장면이 애국가의 배경 화면으로 사용되면서 애국송이라고 불리게 됐다. 동해안에는 많은 해돋이 명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조대는 손꼽을 만큼 절경을 보여 주는 곳이다. 군사지역 안에 위치해 있는지라 야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데, 새벽 6시경에는 하조대와 등대가 개방되기 때문에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울산 간절곶

울산 간절곶은 독도와 울릉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땅에서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장소이다. 대나무로 만든 긴 장대를 닮았다고 해서 간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간절곶은 울주 8경 중의 하나로 큰 등대가 하나 있는데 기능을 다 한 등대가 아닌 아직까지도 불을 켜고 실제 등대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새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너른 공간에 아가자기한 조각들과 예쁜 등대, 나무 데크와 바다를 향해 배치되어 있는 의자들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일출을 감상을 할 수 있다.

따뜻한 남쪽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절경 남해안



원효대사가 수행한 바위에서 바라보는 일출, 여수 향일암

남해안에서 동해의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은, 여수엑스포역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으며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일출명소 중의 하나이다.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다 보면 넓은 공원과 함께 향일암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인다.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길을 올라가면 향일암이 보이는데, 가장 유명한 관음전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유명하다. 옛 원효대사가 수행했던 바위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천혜의 절경을 보여주는 제주 성산일출봉

천혜의 절경이 많기로 유명한 제주도에서도 성산일출봉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다. 성산일출봉 옆에 있는 광치기 해변에서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 한없이 넘실대는 푸른 바다와 그림처럼 떠 있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풍경이 됐다. 때묻지 않은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성산일출봉 일출은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하늘 빛이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는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감동마저 주는 장관을 연출한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서해안



소박한 어촌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일출 서천 마량포구

작고 한적한 어촌인 마량포구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 나온 지형으로 서쪽과 동쪽에서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돋이 감상이 가능하다. 이 곳의 해돋이는 특이하게도 해가 남쪽으로 가장 많이 기우는 동짓날인 12월 중순을 중심으로 50일 전후에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해돋이와 해넘이를 같이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서천해양박물관 옆 해안도로 일대와 수령 500년 이상의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 동백정, 동백정 앞 방파제가 일출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수수하고 서정적인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당진 왜목항

왜목항은 꽃처럼 위로 툭 튀어 나와 양쪽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형으로 육지가 멀고 수평선이 동해안과 같은 방향이라 서해안임에도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동해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수하고 서정적인 해돋이를 볼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의 서해를 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바다를 코앞에 품은 왜목항은 해안을 따라 약 1km쯤 되는 나무 데크와 중간중간 벤치도 있어 풍광을 감상하기 아주 좋다. 견우와 직녀가 놀았다는 오작교와 70m의 낮은 높이를 자랑하는 석문산은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맞이하는 행복한 문화 소식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1월, 소중한 사람들과 신년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함께 보내며 일상 속에서 문화 생활로 즐거움도 찾아 보자.

글 편집실

이달의 추천 도서



작은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백창화 김병록 지음 / 남해의 봄날

충북 괴산의 시골 마을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저자가 골목골목 숨겨진 작은 책방을 찾아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이야기. 보석 같은 동네 서점들을 1년여 동안 순례하면서 작은 책방들이 살아가는 유쾌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담아 낸 책이다. 개성 넘치는 책방지기들의 특색 튀는 북리스트와 가슴 뛰는 책 공간으로 새로운 반격을 시작한 동네 서점들의 이야기, 책 문화 공간 실험인 북스테이와 전국의 작은 책방 70여 곳의 예쁜 그림지도까지 알차게 담았다.



중국발 금융위기, 어디로 갈 것인가

김영의 조용준 안유화 임상균 지음 / 한스미디어

2015년 중반,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칠 것이라는 우려가 엄습했다. 중국발 금융위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작금의 중국발 금융위기의 실체와 향방을 점검하고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해 주는 책이다. 국내 최고의 전문 기들이 중국발 금융위기를 진단하고 중국 경제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중국 증시의 향방과 중국 정부의 대응책을 정리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 한국의 대응 전략도 분석한다.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

와다 이치로 지음 김현화 번역 / 한빛비즈

저자인 와다 이치로는 일본 명문 국립대인 교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백화점인 다이마루점에 24세에 입사에 42세에 퇴직할 때까지 18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회사의 색깔에 물들어야 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했다 등 저자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얻은 진심 어린 조언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동기가 먼저 승진하는 것을 웃으며 넘겼어야 했다'로 끝맺음을 하며 직장인들에게 '행복과 불행은 마치 꼬아 놓은 새끼줄과 같이 번갈아 찾아오는 법이다.'라는 조언을 남긴다.

이달의 최신 개봉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0여 명의 언론인이 해직되었다. 해직 언론인 대부분이 노조 간부가 아닌 것은 물론, 그중 상당수는 평범한 언론사의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던 이들이다. 자신이 다니던 언론사가 권력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던 그들은 공정방송이란 상식적인 요구를 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해직통보였다.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자신이 몸담았던 언론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에 이미 관심이 되어버렸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도 착잡하기만 하다.

감독 : 김진혁

출연진 : 강지웅, 권성민, 권석재, 노종면, 박성제, 박성호, 박진수, 우장균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버스킹 뮤지션 제임스는 길거리에서 상처 입은 고양이 밥을 우연히 발견한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고양이 밥을 위해 생활비를 모두 쏟아 치료해준 후, 어느 날처럼 거리 버스킹 공연을 시작한 제임스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채게 된다. 어느새 고양이 밥이 제임스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평생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환호 속에 제임스는 고양이 밥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이어나간다.

감독 : 로저 스포티

출연진 : 루크 트레더, 조앤 프로그렛, 대런 에반스



너브

대학 입학에 앞둔 소심한 성격의 비는 일탈을 결심하고 SNS 미션 수행 사이트 너브에 가입하게 된다. 미션을 수행하는 플레이어(player)와 그들의 미션 성공 여부를 배팅하는 왓쳐(watcher)들이 소통하는 10대들의 비밀 사이트 너브는 왓쳐가 늘어날수록 단계별 상금 또한 늘어나는 24시간 라이브 게임이다. 플레이어가 된 비는 미션 도전 중 미스터리한 남자 이안을 만나 파트너가 되고 미션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상금을 얻으며 온라인 스타로 부상한다.

감독 : 헨리 유스트

출연진 : 엠마 로버츠, 데이브 프랭코, 에밀리 미드, 마일즈 헤이저, 줄리엣 루이스



음주와 과식이 많은 연말연시 위식도 역류병 주의보

회사원 A씨는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에 참석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술과 음식을 즐겼는데, 다음 날이 되자 속이 쓰려 온다.
술로 인한 숙취인가 싶어 병원을 찾았는데 위식도 역류병 진단을 받았다.
연말연시에 주의해야 하는 위식도 역류병이란 무엇일까.

글 편집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위식도 역류병이란?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 내로 역류하여 식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슴 쓰림이나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킨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식도조임근이 있는데 이는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열고 평상 시에는 조여져 있어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이 조임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액이 식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위식도 역류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신물이나 쓴물이 올라온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도 가끔 위액이 역류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위로 내용물이 다시 내려가기에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류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면 위산과 위 내용물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여 쓰리고 아픈 증상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식도염(식도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짓무르는 것), 식도궤양(식도 점막의 일부가 근육층까지 파이는 것), 협착(식도 내강이 좁아져서 음식을 삼키기 힘든 것) 등을 일으키며 때로는 역류된 위산이 목까지 넘어와 후두염, 천식, 만성기침, 선목소리, 흉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병의 진료 인원은 12월에 가장 많은데 이는 회식이나 송년회 등의 모임이 많아 음주나 과식을 자주 하게 되고,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복압이 증가하여 위식도 역류현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위식도 역류병 예방법

위식도 역류병이 생겼을 때 약물로 치료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는다.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식도조임근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기름진 음식, 커피, 술 등을 피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특히 복부비만은 위식도 역류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치료와 병행할 수 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다. 또한 잘 때 위는 식도보다 왼쪽에 위치하므로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누워 자는 것이 역류가 적게 일어난다. 누워 있을 때도 위식도에서 역류가 일어난다면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도 효과가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좋지만 과격한 운동은 금한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이 있는 기간에는 브로콜리, 양배추, 무, 마 등 위에 부담이 덜한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포도, 딸기, 오렌지, 주스 등 산성이 강한 과일이나 주스,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위식도 역류병 자가 진단

단순하게 속이 쓰린 것인지 위식도 역류병인지 알고 싶다면 자가 진단법을 활용해 보자. 아래에 있는 표의 점수 합계가 8점 이상이라면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위식도 역류병 자가 진단>

역류 증상	없음	1일	2~3일	4~7일
가슴이 쓰린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0	1	2	3
위 내용물이 목구멍이나 입으로 역류한 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0	1	2	3
상복부 중앙(명치)에서 통증을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3	2	1	0
속이 메스꺼린 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3	2	1	0
가슴쓰림이나 위 내용물의 역류 때문에 수면 방해를 받은 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0	1	2	3
증상이 불편해서 제산제, 소화제 등을 의사 처방 없이 추가로 복용한 적이 나타나요?	0	1	2	3

진단 방법 및 결과

- 증상은 일주일 내에 일어난 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 질문 합계가 8점 이상이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먹어온 바다의 우유 굴

10월에서 3월까지 추운 날씨에 먹기 좋은 굴은 추울수록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양에는 영어로 스펠링에 R자가 들어가지 않는 달인 5월(May), 6월(June), 7월(July), 8월(August)에는 굴을 먹지 않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이 시기가 굴의 산란기여서 아린 맛이 나며 쉽게 상해 중독되거나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편집실 도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오래전부터 즐겨온 굴

철기 시대 초기의 경남 김해 조개무지에서 살조개, 새고막, 가막조개, 전복, 무명조개, 홍합, 굴조개, 다슬기, 우렁이 등 30여 가지의 조개껍데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굴을 식용해 왔다.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예전에 남양만에서 굴이 많이 나왔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나폴리에서 굴 양식을 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 역시 굴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굴은 세계 곳곳에서 많이 나는데 종류가 80여 종에 이른다. 먹는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선한 굴을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즐기는 식문화가 발달한 곳이 많다. 우리나라는 굴을 초간장이나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고 유럽에서는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중국은 볶거나 끓여 먹는 경우가 많다.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고

굴은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는 말이 있듯 영양적으로 완전식품에 가깝다. 단백질은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과 히스티딘이 많아 곡류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고, 당질은 글리코겐 형

태로 많이 들어 있어 소화 흡수가 잘 되므로 회복기 환자나 노인, 아이들에게 두루 좋다.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철분, 아연, 칼슘, 인 등이 고루 들어 있어 빈혈 치료에도 아주 좋다. 또 타우린, 셀라늄, EPA가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성인병 예방에 좋다.

맛있고 싱싱한 굴 고르는 법

싱싱한 굴은 살이 오돌오돌하고 통통하며 유백색이고 광택이 난다. 살짝 눌러 보았을 때 탄력이 있고 살 가장자리에 검은 테가 뚜렷이 나 있는 것이 갠 지 얼마 안 된 것이다. 전체가 붉은 것처럼 희끄무레하고 살이 퍼진 것은 고르지 않는 것이 좋다.

천연 굴은 알이 작지만 맛있는데, 최근에는 양식 굴이 많다. 비닐봉지나 통에 비닐과 함께 포장하여 파는 것은 대개 양식 굴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굴은 껍질을 까는 순간 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갠 굴을 먹으려면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굴을 익히지 않고 먹으려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맛있다. 굴은 맹물에 박박 문질러서 씻으면 수용성 영양분과 단맛이 빠져 나가므로 소쿠리나 망에 굴을 담아 소금물에 살살 휘저어 씻는다.



고소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굴 튀김' 만들기

굴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식품이지만 강한 냄새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에 좋은 굴을 튀김으로 만들어서 즐겨 보면 어떨까. 굴의 강한 향은 사라지고 고소함이 증가되어 굴을 싫어하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재료 : 굴 1봉지, 달걀 1개, 전분 1/2컵, 빵가루 1/2컵, 소금·후추 약간, 식용유
소스 재료 : 마요네즈 5큰술, 레몬즙 1작은술, 다진양파 2작은술, 다진피클 2작은술

만드는 법

- ① 굴은 소금물에 살살 씻어서 채반에 받쳐 물기를 뺀다.
- ② ①의 굴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 뿌려서 밑간을 해 준다.
- ③ 굴을 봉지에 넣고 전분가루를 넣은 다음 살살 흔들어 굴에 전분이 골고루 묻게 한다.
- ④ ③의 굴에 계란과 빵가루를 차례로 입힌다.
- ⑤ 튀김 냄비에 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가열한 뒤 ④의 굴을 차례로 넣는다.
- ⑥ 겉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식힘망에 올려 기름을 빼 준다.
- ⑦ 소스 재료를 모두 섞어 완성된 굴 튀김과 함께 담아 낸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2017년 9월 5일부터 **선착순 판매중**

문의 1544-4226

NAVER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검색

2017년 12월 29일, 미래직업Lab 전체 개관

어린이·청소년직업체험관 **미래를 경험하자!**
한국잡월드에서

코너위치 : 직업세계관 4층 미래직업 Lab

이용대상 : 입장권 소지고객

이용시간 : 오전 9시 ~ 18시 30분



What 미래직업 Lab?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직업과 미래기술, 미래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시·체험형 콘텐츠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미래로의 초대'와 '미래의 병원', '3D·4D 프린팅존', '인공지능 로봇존', '미래의 집' 코너를 1차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Why 왜 Lab인가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트렌드와 미래 직업을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실험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오픈형 실험실, 연구소(Laboratory)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월간 <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월간 <내일>과 함께해 주세요

1. 월간 <내일>을 웹진으로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 홈페이지(<http://labor21.com/>)에 접속하면 지난해부터 최신호까지 다양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월간 <내일>은 독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알고 싶은 정책, 좋았던 기사, 기타 개선해야 하는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 주세요.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12월호 퀴즈 정답 ASEAN 5개국 취업박람회

12월호 당첨자	서예연(충남 부여군)	이호진(서울 중랑구)
김윤정(충북 괴산군)	유해진(경기 부천시)	조현정(경기 의정부시)
김윤희(서울 도봉구)	윤조이(서울 은평구)	황복희(대전 대덕구)
김호기(경남 거제시)	이병화(서울 노원구)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1만 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1월호 퀴즈 :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와 전략 산업 전문인력 육성, 지역별 직업훈련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에 적어, **매월 10일**까지 <내일>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월간 <내일>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독자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아 가세요. 독자 퀴즈의 정답은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1만 원)을 드립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마음 첫 시작은 항상 새롭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다짐을 생각하시겠지요.

프랑스의 사상가 샤를 몽테스키오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목적에 온 힘을 집중하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많은 목적에 힘을 분산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천 가능한 목표인지 한번 생각하고
꼭 이루어야 할 것을 다짐한다면

2018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이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Happy New Year

내일

my Work, my Tomorrow 2018. 1. vol. 513

보내는사람

성명 _____ (남 여)

주소 _____ HP(- -)

□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01.25 - 2018.01.24

서울강남우체국
제41787호

my Work, my Tomorrow 2018. 1.

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3길 8 (신사동, 산도빌딩 5층)

하나로애드컴 월간 <내일> 편집실 앞

0	6	0	2	6
---	---	---	---	---

< Campaign Report >

1. 귀하의 성별은?

- 남자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이상

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은?

- 유통 ·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 · 제약
 교육업
 건설업
 IT통신
 미디어디자인
 금융업

4. 귀하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션은?

- 청년 정책
 여성 · 중장년 이야기
 기타 고용노동정책
 문화예술 정보

6. 보셨다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업종 다양화
 실패 사례
 관련 제도
 트렌드사업 정보

5.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 1월호 독자퀴즈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 이번 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다음 호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이나 월간 <내일>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이곳에 풀을 칠해 주세요